

'기진맥진' 원유 생산량 언제 회복되나

올여름 무더위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가 9월에도 지속되면서 고온스트레스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잉여량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0월 25일 10월 중 낙농산업 주요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 중 원유생산량은 16만5천882톤으로 무더위가 극심했던 8월 17만1천톤 보다도 3%가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생산량은 5천528톤으로 전월대비 0.2%가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5천823톤에 비해서는 0.7%가 적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57만9천207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7%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준원유량을 초과하는 잉여원유의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 농가 기준으로 9월 중 잉여율은 2.8%로 전년 동월 8.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유제품의 생산과 소비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중 백색시유 생산량은 3.8%가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치즈 생산량은 39.8%가 줄어들었다.

소비량은 백색시유가 전월대비 2.7%가 가공시유는 8.6%가 증가해 전체 음용시유 소비물량은 전월대비 3.8%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서울우유, 남양, 매일, 빙그레 등 주요 유업체들이 유제품 가격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어 흰우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2.3% 하락한 2,093원(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우유 담합조사 최종결과 도출 목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유담합조사의 심사보고서를 배포하고 최종결과 도출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시작

된 우유담합 조사가 심사보고서 배포를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 배포 후 통상 의견제출기간이 2주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전원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빠르면 내달 중에는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남양, 매일, 빙그레 등 4대 업체는 자발적으로 주요제품에 대해 많게는 13%까지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등 대대적인 가격행사를 벌이고 있다.

"간척지에 축산단지 조성 인프라 미흡"

간척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기까지 멀고도 험한 길인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조사료 재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1일 신현관 축산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화성시, 농협, 당진낙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간척지 활용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척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10년 내 농업목적 간척지 3만ha 수준의 완공이 전망되면서 간척지에 축산단지(3천ha)를 조성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다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제반 사항이 갖춰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조사료 재배도 마찬가지로 조사료를 제대로 재배하려면 무엇보다 염기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이 문제이면서 간척지 운영권을 누가 갖도록 하느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관 과장은 "조사료 재배시 절차에서부터 축산단지 계획시 필요사항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